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방중 기간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으며 핵심적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화를 모색하는 중”이라 밝혔다.

미·중 관계 회복되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킹으로

2023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전격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산업망-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과 위험 완화를 모색하는 디리스크킹(De-risking)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으며 핵심적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화(Diversifying)를 모색하는 중”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디커플링을 비판하고 디리스크킹을 주장했으며, 이어 2004년 4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디리스크킹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도 ‘다변화(Diversifying)’와 ‘파트너십 심화(Deepening Partnership)’ 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킹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결국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킹을 추구하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중요성과 새로운 차원의 경제-기술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옐런 재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중 타협을 위한 접점은?

물론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투자·기술 정책 분야에서 타협을 찾을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미·중 기술-경제 경쟁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분야 추가 제재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중국 역시 첨단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밝히고 있어 미·중 간 기술-경제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서 추가 제재를 밝히고 있어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사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주요 목적이 미국 국채 구매 요청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 압박과 포위가 확대되는 구조 속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거 줄여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중국이 옐런 재무장관 방중 이후 미국 국채 보유량을 늘린다면 미국 역시 대

중 기술 제재 철회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중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이미 중국은 줄곧 1,300여 개 중국 기업 대미 수출품에 부과된 각종 관세와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중국 역시 미국 국채 매입을 포함한 각종 경제 현안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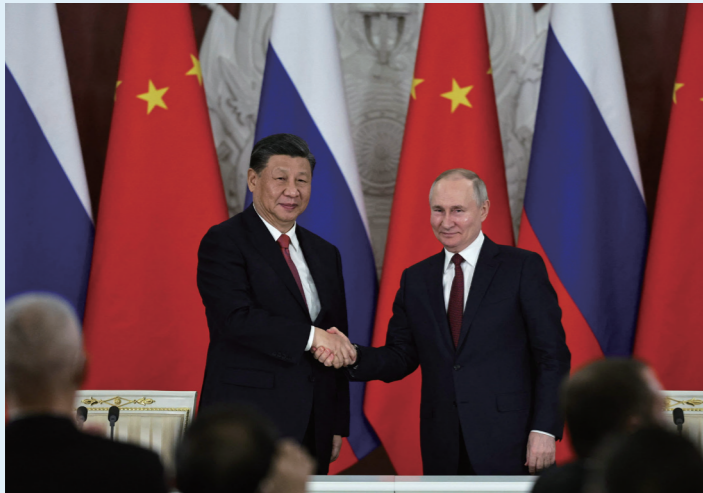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대해 미국은 양국 관계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상호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직접 소통하기 위한 방문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 간단히 발표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출현

한편 중국은 줄곧 미국이 주장하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크킹 정책이 자국의 경제-기술 부상을 막고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진영화 구축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미·중 관계 권위자이자 원로학자인 왕지쓰 중국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최대 위협이자 도전 세력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가 격한 대립과 긴장을 일부 낮출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정재홍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경기도 국제평화고려위원회
위원,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중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중·러 정상회담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중·러 간 협력 강화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출현을 불러올 전망이다.

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지속적인 경쟁과 대결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3년 7월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24일 만의 재회동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조속한 군사 소통 채널 구축과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왕이 정치국 위원은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적 제재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새로운 대내외 정책 노선을 밝힌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변화는 과거 중소 국경 분쟁 시기 불편했던 중·러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 질서 다극화와 국제 관계 민주화 실현을 위해 21세

기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중·러 정상은 '새로운 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주권, 영토 보존, 안보, 경제 발전 문제 등에 대해 상호 협력과 지지를 밝혔다.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과 디리스크링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상하이 협력기구SCO,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연대와 협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중인 러시아가 세계 1위 산업-제조 공급망을 가진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 및 유라시아 정치-경제 통합을 가속화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대외 정책 노선을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광활한 영토와 에너지 자원을 가진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산업-제조 공급망과 14억 소비 시장을 가진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인해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러 양국은 유라시아 지역 서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동쪽에 위치한 대만해협 문제를 놓고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CIS 연합체)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안보 협력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2023년 7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3차 SCO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서방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보호주의와 일방 제재, 국가안보 개념의 일반화,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역내 국가들 간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 등을 통한 발전 성과를 보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제 거버넌스 개혁과 변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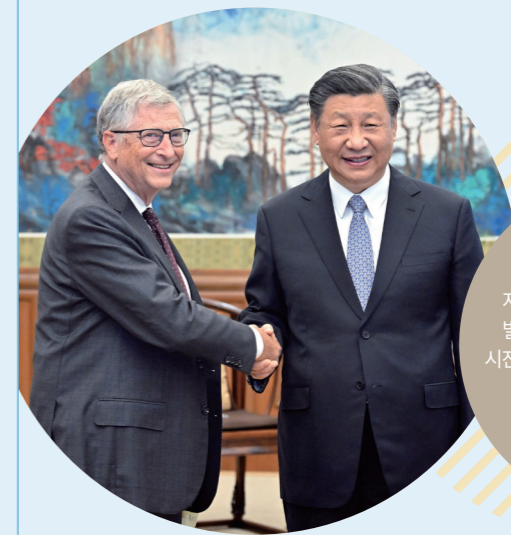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링으로

한편 2023년 6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찰풍선 사건을 거론하며 시 주석을 독재자Dictator로 지칭했으나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 빌 게이츠MS 설립자,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 등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 분야 핵심 영역인 2차전지와 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희토류 등)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도 적지 않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링으로의 대중 정책 전환을 밝혔다.

조만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

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으로 방향이 전환될 전망이다. 결국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앨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얼마나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중 관계 개선에 핵심 척도로 보인다. 물론 미·중 간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놓고 다시금 언행言行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양국 관계는 심각한 경쟁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무너지고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며 러시아와 긴밀하게 손잡고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정치-경제-안보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제 질서 인식과 함께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



빌 게이츠와 시진핑의 만남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왼쪽)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을 만나 미·중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